

## 최근 SF 어린이청소년문학의 여성주의적 분석

김유진\*

### 국문초록

이 글은 모성, 여성과 과학기술의 관계, 성과 사랑, 소수자 등 여성주의와 긴밀하게 관련된 SF의 주요 이슈들을 중심으로 최근 SF 어린이청소년문학을 분석한다.

1960년대 이후 영미 SF 연구에서는 마르크시즘, 페미니즘, 퀴어 이론, 포스트모더니즘, 생태주의, 미래학 등의 이론적 접근으로 심도 있는 SF 연구와 비평이 이루어졌으며 이것으로 SF의 문학적 가능성이 더욱 강조되었다. 그중 페미니즘 이론과 관련한 접근은 가부장 구조를 전복하고, 젠더에 대한 전통적 가설을 해체하고 재구성한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 있는 연구 방법이 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가장 대표적인 페미니즘 과학기술 이론으로 논의되고 있는 다나 해러웨이(Donna J. Haraway)의 사이보그 페미니즘(Cyborg Feminism), 주디 와츠먼(Judy Wajcman)의 테크노페미니즘(Technofeminism)에 비추어 작품을 살펴본다.

1960-70년대 다양한 장르문학과 아울러 창작되고 번역된 한국 SF 아동청소년 소설은 2010년대부터 다시 활발히 창작되며 문학적 새로움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현재는 신선한 활력을 잃고 엇비슷한 디스토피아 세계관을 되풀이하는 듯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주의적 작품 분석은 SF가 지닌 다양하고 넓은 문학적 자장과 가능성을 시사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페미니즘 SF는 ‘지금 여기’의 세계를 전복하는 SF의 상상력과, 여성을 비롯한

\*어린이문학평론가, aravis@hanmail.net

소수자와 약자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페미니즘의 세계관 모두를 겸비하고 있으므로 어린이청소년문학 전반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어린이와 청소년은 어른의 통제로 구성되고 운영되는 '지금 여기' 우리 사회의 소수자이기 때문이다. 리얼리즘 어린이청소년문학과는 또 다른 SF만의 진복과 혁신의 상상력은 어린이청소년문학의 현재와 미래의 방향을 각성시키며 새로운 창작 실험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 주제어: SF, 여성주의, 동화, 청소년소설

목 차

1. 서론	1) 미래 사회의 성과 생식에 대한 전통적 상상력
2. 엄마상에 반영된 모성과 여성	2) 에코페미니즘의 이분법과 낭만적 사랑
1) 로봇 엄마와 모성	4. SF 어린이청소년소설과 소수자 문학의 가능성
2) 과학기술 찬양과 과학기술 비판 양단의 여성	5. 결론
3. 가부장적 성 인식과 낭만적 사랑으로 규정된 여성	

## 1. 서론

2010년대 이후 한국 어린이청소년문학에서는 SF의 창작이 어느 때보다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2010년대 초반 유수의 어린이청소년문학상을 수상한 작품은 SF가 대다수<sup>1)</sup>일 정도로 최근 창작된 SF 어린이청소년소설은 나름의 문학적 성취를 보이며 창작 환경에 새로운 자극을 주었다.

1 문학상을 수상한 주요 SF 작품에는 '창원아동문학상' 수상작 『로봇의 별』(전3권, 이현, 푸른숲주니어, 2010), '창비 청소년문학상' 수상작 『싱커』(배미주, 2010), '창비 좋은 어린이책' 수상작 『지도에 없는 마을』(최양선, 2012), 『엄마 사용법』(김성진, 2012), '문학동네어린이문학상' 수상작 『거짓말학교』(2009), 『열세 번째 아이』(이은용, 2012), 『몬스터 바이러스 도시』(최양선, 2012) 등이 있다.

이들 SF 어린이청소년소설의 특징 중 하나는 지금 우리 사회의 현실을 미래 세계로 연장하고 이동시켜 디스토피아를 구축하는 점이다. 많은 작품들이 특히 어린이, 청소년 독자의 현실과 밀접하게 관련된 경쟁적 교육 시스템, 억압되고 통제된 전체주의 사회상을 재현해왔다. 사회 현실에 대한 강한 비판과 풍자는 비단 아동청소년문학만이 아닌 한국 SF의 특징으로 분석되기도 한다.<sup>2</sup>

작품의 특징에 따라 최근 연구 또한 이러한 지점을 포착한다. 한국 SF 어린이청소년문학 연구는 이전 SF 전성기인 1960-70년대 작품에 대한 연구<sup>3</sup>와, 최근 SF에 대한 연구와 평론<sup>4</sup>으로 나뉘는데 후자의 경우 작품 속 디스토피아, 계급 사회, 과학기술 발전에 대한 우려와 비판 등이 어린이청소년문학에서 지니는 의미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김유진의 평론 「SF가 이야기하는 ‘어린이’와 그의 ‘세계」는 일부 SF에 나타난 디스토피아에 오늘날 어린이가 살아가는 사회 현실에 대한 비판과 자성이 담겨 있으나 현실을 균열시키고 변화시킬 동력이 발견되지 않고 오히려 어린이의 선택과 가능성의 영역을 한정시킨다고 평가했다. 권혁준

2 한국 SF의 특징 중 하나는 사회 풍자에 높은 관심으로, 특히 2010년대부터 젊은 작가들이 사회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은 바를 과학소설의 형식을 이용해 제시하는 예들이 많이 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박상준 외, 『한국 창작 SF의 거의 모든 것』, 케포이북스, 2016, 208면.)

3 관련 평론으로는 김이구의 「과학소설의 새로운 가능성」(『어린이문학을 보는 시각』, 창비, 2005.), 김지영의 「1960~70년대 청소년 과학소설 장르 연구—『한국과학소설(SF) 전집』(1975) 수록 작품을 중심으로」(『동남아문논집』 제35집, 2013.), 「한국 과학소설의 장르소설적 특징에 대한 연구—『한국과학소설(SF)전집』(1975)을 중심으로」(『인문노총』 제32집, 경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3.), 조계숙의 「국가기대올로기와 SF, 한국 청소년 과학소설-학생과학지 수록작을 중심으로」(『대중서사연구』 제20권 3호, 대중서사학회, 2014.), 최애순의 「우주시대의 과학소설—1970년대 아동전집 SF를 중심으로」(『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60집 17권 3호,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13.)가 있다.

4 관련 연구로는 김유진의 「SF가 이야기하는 ‘어린이’와 그의 ‘세계」(『창비어린이』(통권39호) 겨울호, 2012.), 권혁준의 「아동청소년문학에 나타난 SF적인 상상력」(『창비어린이』(통권 45호) 여름호, 2014.), 박해영의 「과학소설에 나타난 어린이의 정체성」, 대구교대 석사학위논문, 2014.), 박정임의 「SF 청소년소설 연구—2000년대 이후 SF 청소년소설을 중심으로」, 건국대 석사학위논문, 2015), 오혜림의 「2000년대 한국 어린이·청소년 SF에 나타난 디스토피아 공간 연구」, 춘천교대 석사학위논문, 2016), 손진원의 「1960년대 과학소설 연구」,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2016)가 있다.

의 평론 「아동청소년문학에 나타난 SF적인 상상력」 또한 미래 사회의 대부분이 “경제적, 사회적 힘의 격차가 극심한 계급사회”로 그려지며 디스토피아적 세계관이 “선명한 이분법적 구도로 전개된다”고 보았다. 오혜림의 논문 「2000년대 한국 어린이·청소년 SF에 나타난 디스토피아 공간 연구」는 앙리 르페브르(Henri Lefebvre)의 공간 사회학을 활용해 디스토피아를 지배, 실천, 대안 공간으로 세분화해서 분석했다.

이 글에서는 작품 속 미래상, 사회상, 어린이상을 분석한 선행 연구들과 관점을 달리해 여성주의 시각으로 최근 SF 어린이청소년문학을 살펴보고자 한다. 모성, 여성과 과학기술의 관계, 성과 사랑, 소수자 등 여성주의와 긴밀하게 관련된 SF의 주요 이슈들을 분석해볼 것이다.

1960년대 이후 영미 SF 연구에서는 마르크시즘, 페미니즘, 퀴어 이론, 포스트모더니즘, 생태주의, 미래학 등의 이론적 접근으로 심도 있는 SF 연구와 비평이 이루어졌으며 이것으로 SF의 문학적 가능성이 더욱 강조되었다.<sup>5</sup> 그중 페미니즘 이론과 관련한 접근은 SF가 다양성을 재현하는 자신만의 문학적 특장으로, 일상화된 가부장적 구조를 전복하고 젠더에 대한 전통적 가설을 해체하고 재구성한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 있는 연구 방법이 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가장 대표적인 페미니즘 과학기술 이론으로 논의되고 있는 다나 해러웨이(Donna J. Haraway)의 사이보그 페미니즘(Cyborg Feminism), 주디 와츠먼(Judy Wajcman)의 테크노페미니즘(Technofeminism)에 비추어 작품을 살펴보겠다.

1960-70년대 다양한 장르문학과 아울러 창작되고 번역된 SF 아동청소년소설은 1980년대 이후 창작이 뜸하다가 2010년대부터 다시 활발히 창작되며 문학적 새로움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현재는 신선한 활력을 잃고

5 장정희, 『SF 장르의 이해』, 동인, 2007, 157면.

엇비슷한 디스토피아 세계관을 되풀이하는 듯 보인다. 이 가운데 여성주의 관점의 작품 분석은 SF가 지닌 다양하고 넓은 문학적 자장과 가능성을 시사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 2. 엄마상에 반영된 모성과 여성

### 1) 로봇 엄마와 모성

최근 SF 동화를 대표하는 엄마상 중 하나는 안드로이드(인조인간) 엄마, 로봇 엄마다. 『엄마 사용법』(김성진, 창비, 2012)에서 여덟 살 현수는 유일한 가족인 아빠의 출장으로 혼자 지내야 하자 “생명장난감”의 일종인 엄마를 집에 들이게 된다. “광고 속 엄마는 같이 놀아 주고, 옷도 입혀 주고, 맛있는 간식도 차려 주었”고 “강아지나 공룡은 한 가지만 할 수 있지만, 엄마는 모든 걸 다 해 줄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즉 현수는 보호자이자 양육자로 기능할 엄마를 원했다.

“생명장난감”인 엄마의 제품 설명서 실린 “엄마 사용법”은 현수의 바람보다 더 제한적으로 가사 도우미로서의 역할로 엄마를 규정한다. “엄마는 모든 집에 어울리는 완벽한 제품”이며 “청소, 빨래, 요리 등 집에서 필요한 모든 힘든 일을 완벽하게 대신 해”준다고 설명한다. 생명-장난의 역설적인 조어가 상징하고, 조립 실수로 감정을 갖게 된 엄마를 폐기처분하려는 사냥꾼과 이를 막으려는 현수의 갈등에서 드러나듯 이 작품은 엄마라는 존재의 기능화에 비판적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현수가 원하는 바가 단지 가사 노동이 아니라 해도 돌봄 노동을 바란다는 점에서는 가부장제가 일률적으로 요구하는 모성과 크게 다르지 않

다. 현수는 자기가 바라는 엄마상 그대로 안드로이드 엄마가 자신에게 책을 읽어주고 같이 산책하도록 엄마를 조작해 나간다. 안드로이드 엄마는 모성에 대한 아이의 욕구에 의해 대상화된다.

SF 동화집 『안녕, 베타』(사계절, 2015)에 실린 「엄마는 차갑다」(경린)에서도 로봇 엄마에게 원하는 건 따듯한 모성이다. 로봇 엄마를 따르던 혜수는 충진중인 상태에서 손대지 말라며 밀쳐내는 로봇 엄마에게 이질감을 느낀다. 로봇 엄마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려다 부엌에서 사고로 한 팔을 잃는 광경을 보고 혜수는 “한쪽 팔이 없는데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고통스러워하지 않는 모습”에 구토까지 한다.

『엄마 사용법』에서 안드로이드 엄마는 아이가 원하는 대로 조작할 수 있는 존재이며 「엄마는 차갑다」에서 로봇 엄마는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경우 혐오를 불러일으키는 존재이다. 이처럼 SF 동화의 로봇 엄마는 어린이 독자들이 소망하면서도 현실에서 완벽하게 충족되지 않는 엄마상과 모성을 작품에서 대리만족하게 하는 기능을 지닌다. 이 때 모성은 사랑의 감정에 기반한 살뜰한 돌봄으로 절대화, 유일화 된다. 어린이문학에서 ‘동심’으로 어린이가 타자화 됐듯 ‘모성’으로 엄마는 타자화 된다. 어린이문학에서 ‘동심’과 ‘동심주의’가 반성되며 탄생한 어린이 주체가 이제 어린이의 대척점에 엄마를 두고 타자화시키는 것이다.

한편 『컬러보이』(손서은, 비룡소, 2014)의 엄마는 절대적인 힘으로 아들 상민을 자신의 후계자이자 대리자로 만들려고 하는 강압적인 엄마다. 그런 엄마에게도 상민이 갖는 불만은 역시 앞의 두 작품과 마찬가지로 전형적인 모성의 결여다. 상민은 로봇인 할리를 생산하는 공장의 공장장으로 로봇 제조자이자 연구원인 엄마가 “자장가 한번 불러준 적이 없”고 밥도 같이 먹지 않고 가사노동을 하지 않는 것에 불만스러워한다.<sup>6</sup> 상민의 엄마는 인간이 아닌 “마더 어셈블리” 즉 기계들의 모체란 사실이 밝혀지지만 상

민이 엄마에게 지냈던 불만은 전형적인 모성을 지니지 못한 엄마에 대한 것으로 고스란히 남는다. 또 상민은 엄마가 자신을 소유물로 여기며 자기 삶을 좌우하려고 하는데서 위협을 느끼는데 이러한 강압적인 엄마상은 많은 동화와 소설이 비판적으로 형상화하는 엄마상과 유사하다. 단지 학업에 대한 경쟁적 성취로 내몰리는 게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재와 자유의 지 자체를 위협받는 상황이니 억압과 공포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이 작품들이 리얼리즘 아동청소년문학 작품들과 다를 바 없거나 오히려 더 문제적인 엄마상과 모성을 표방하고 있고, 이러한 문제점이 잘 드러나지 않고 비판적으로 논의되거나 성찰되지 않는 이유는 ‘로봇 엄마’라는 SF적인 설정 때문으로 보인다. 인간과 로봇이 분리된 채 인간 중심적 관점에서 인간(어린이)이 로봇(엄마)을 쉽게 타자화, 대상화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다나 해러웨이의 ‘사이보그 선언 : 1980년대의 과학, 기술, 그리고 사회주의 페미니즘’을 살펴볼 만하다. 앞의 작품들에서 엄마는 인간과 기계의 혼합체인 사이보그는 아니고 로봇이나 안드로이드지만 인간과 같은 감정을 지니고 있고 더 섬세한 감정을 요구받고 있으며 어린이 주인공이 인식하는 존재의 성격이 인간과 가깝다는 점에 있어서 사이보그로까지 확장시켜 볼 수 있다. 사이보그는 미래의 인간 정체성을 모색하는 주요 개념으로 부상했는데 국내외 사이보그론에서 가장 중요한 기점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다나 해러웨이의 ‘사이보그 선언’이다.

해러웨이는 이 글에서 “기계와 유기물, 기계적인 것과 유기적인 것 사이

6 “수량은 나에게 비하면 엄청나게 운이 좋은 녀석이다. 수량의 집에는 언제나 따뜻한 온기와 음악이 흐른다. 비에 젖은 나를 보자 수량 엄마는 무슨 일인지 묻지도 않고 그냥 커다란 수건으로 내 몸을 닦아 주었다. 아줌마의 곱슬머리에서 좋은 샴푸 냄새가 났다.

오븐에선 빵 굽는 냄새와 붉은 커피 향이 집 안 전체에 퍼졌다. 뻣뻣하게 다려진 노란색 테이블보 위에는 시금치 파이와 갓 구운 쿠키가 있었다. 할리는 보이지 않는다. 사람 사는 집은 이래야 하는 것 아닐까. 커다란 나의 공장 집에는 일하는 할리와 할리에 미친 엄마밖에 없다.”(『컬러보이』, 48~49면.)

의 어떤 근본적인 존재론적 구분이란 없다”<sup>7</sup>고 밝히며 페미니즘의 새로운 주체는 이원론을 따르지 않는 사이보그의 특성을 지녀야 한다고 주장했다. 페미니즘에서 본질적, 보편적, 결정적인 개념으로 사용해 온 여성과 여성성이 오히려 전체주의를 강화하고 여성 억압의 기제로 작용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경계해체와 융합이 특징인 사이보그의 정체성 구성은 본질적 여성 개념을 넘어 유동적 정체성 개념을 수립한다.<sup>8</sup>

앞서 살핀 동화의 로봇 엄마들 역시 인간의 감정과 기계인 육체 사이에서 ‘분열된 정체성’을 보이는 점에서 사이보그의 정체성을 지닌다. 하지만 로봇 ‘엄마’의 젠더 정체성은 작품에서 오히려 강화된다. 『엄마 사용법』에서 현수는 분열된 정체성을 지닌 안드로이드 엄마를 전통적 모성을 지닌 엄마로 만들어나간다. 해러웨이의 사이보그 페미니즘은 사이보그를 통해 유기체와 기계 사이의 경계 해체, 이원론의 해체로 여성 정체성이 새롭게 구축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지만 작품은 반대 방향으로 나아간다. 지난 헐리우드 영화 속 사이보그들이 전통적 젠더 역할에 충실한 채 남성 사이보그들은 국가나 사회 질서를 회복하는 임무를 띠는 데 반해 여성 사이보그들은 공동체의 질서를 위해 제거되고 억압될 대상으로 재현<sup>9</sup>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SF 동화의 로봇 엄마는 모성에 대한 인식과 아울러 미래 과학기술에 대한 통찰에 있어서도 문제적인 지점이 있다.

## 2) 과학기술 찬양과 과학기술 비판 양단의 여성

SF 동화에 나타난 엄마상에서는 과학기술 찬양 혹은 과학기술 비판 양

7 박진희, 「페미니즘과 과학기술」, 한국과학기술학회 강연/강좌자료, 2005, 54면에서 재인용.

8 박진희, 앞의 글, 장정희 앞의 책 223~243면 참조.

9 장정희, 앞의 책, 243면.

단에 위치하는 여성이 확인된다. 대개의 경우 과학기술에 비판적인 성격을 지닌 인물이며 과학기술을 찬양할 경우 부정적인 인물로 묘사된다. 『컬러보이』에서 상민과 대립하는 인물인 엄마의 진짜 정체가 기계라는 사실이 밝혀지기 전 상민 엄마는 로봇을 만드는 제조자이자 연구자인 기술애호가로 그려진다. 상민은 전통적인 엄마상과 기술애호가인 자신의 엄마를 대척점으로 파악하며 가사와 양육에 무관심한 엄마를 “로봇에 미친” 엄마라고 비판한다.

2000년 초 창작된 『씨앗을 지키는 사람들』(안미란, 창비, 2001)에는 기술과학과 여성의 관계에 대한 특징이 엄마상에 보다 분명하게 반영되어 있다. 주인공 진희의 엄마 정 박사는 식물 품종을 개발하는 과학자이다. 정 박사는 인공 성장 호르몬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거대 자본의 이익과 시스템이 시키는 대로 일하는데 이를 두고 동료 문 박사는 “당신만큼은 양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이 어머니니까요.”라고 질책한다. 정 박사는 이에 대해 “더 비싸더라도 진희에게 안전한 음식을 먹이려고 애쓰는 자신이 아닌가. 임신한 걸 알았을 때 그렇게 좋아하던 커피도 당장 끊지 않았던가. 그런데 지금은 뭐란 말인가.” “난 돈을 위해 일하는 과학자밖에 안 되는 것인가.”하고 자책한다. 질책하는 문 박사나 자책하는 정 박사 둘 다 과학자로서의 전문성에 의한 가치 판단과 반성이 아닌 엄마로서의 자각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과학자 엄마는 엄마의 정체성으로 과학자로서의 자신의 임무를 그만 두게 되고, 종자의 지적 재산권에 반대하는 진희 아빠의 사회적 행동을 뒷받침하는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긍정적 인물로 자리매김된다.

반면 최근 출간된 청소년소설 『달 위를 걷는 느낌』(김윤영, 창비, 2014)에서 핵융합 과학자이자 달 탐사를 다녀온 우주인 아빠와 아스퍼거 증후군이 있는 루나는 과학 지식으로 소통하는 관계인데 반해 엄마는 과학에 관심

이 없는 무지하고 무기력한 인물로 묘사된다. 루나는 아빠와 과학자 도킨스의 학설에 관해 대화하곤 했는데 엄마는 도킨스의 이름조차 알지 못하니 말문을 닫는다. 아스퍼거 증후군인 루나가 세계와 소통하는 유일한 창구가 과학임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과학에 무관심하기에 루나는 오직 아빠와 각별한 애정을 쌓아나간다. 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아빠가 뇌 수술 후 다른 사람이 될까 염려하는 루나가 “엄마가 똑똑하지 않다고 싫어하고, 나는 장애가 있다고 미워하고”라 말하듯 엄마는 과학기술을 잘 알 만큼 지적이지 않기 때문에 루나에게 중요하지 않은 존재로 규정된다.

SF 아동청소년문학에서는 엄마를 비롯한 여성 인물과 여성성이 대개 과학기술에 비판적이거나 대립하는 것으로 그려진다. 권혁준은 「아동청소년 문학에 나타난 SF적 상상력」(『창비어린이』, 2014년 여름호)에서 『로봇의 별』, 『싱커』, 『몬스터 바이러스 도시』 등을 조망하며 이 작품들이 과학-재앙-남성(정치가, 기업가)/자연-구원-여성(어린이, 청소년)의 이분법 구도로 전개된다고 정리한다. “과학과 인공은 인류에게 재앙을 가져다 줄 것이며 그런 세계를 만들어낸 세력은 기업가, 정치가 들이고 그들은 거의 남성”인데 이를 “구원해 줄 주체는 여성과 어린이, 청소년들이며 인류를 구원할 최후의 방법은 자연을 회복하는 것”으로 제시된다는 것이다. 이어 “이와 같은 구도가 여러 작품에서 비슷하게 반복되는 것은 SF를 관습적 장르로 격하시킬 위험성이 있”<sup>10</sup>다고 지적한다.

지금까지 대개의 SF 어린이청소년문학이 내보인 과학기술에 대한 비판과 우려는 에코페미니즘 등 급진적 페미니즘과 상통한다. 이들은 기술 자체가 본질적으로 가부장적이어서 여성이 착취와 억압을 당할 수밖에 없으며 여성이 기술에 접근한다 해도 가부장적 가치관의 지배라는 구도 안에

10 권혁준, 「아동청소년문학에 나타난 SF적인 상상력」, 『창비어린이』(통권 45호) 여름호, 2014, 31~33면.

남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해 왔다.<sup>11</sup>

그러나 기술-남성적 특성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를 취한 과거 페미니즘과 달리 주디 와츠먼의 테크노페미니즘은 과학기술 특히 디지털 기술과 여성의 삶, 주체성, 행위들이 긍정적으로 결합될 가능성에 주목한다. 과학기술의 남성성을 비판한 에코페미니즘의 비판론과 과학기술의 여성성을 주장한 사이버페미니즘의 낙관론과 달리 기술과 여성의 긴장 관계를 중시한다. 다나 해러웨이 역시 ‘사이보그 선언문’에서 에코페미니즘이 주장하는 자연과 여성의 동일시를 거부하면서, 과학기술의 잠재력을 이용하고 있는 현재 세계를 철저히 분석하고 여성의 새로운 역할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sup>12</sup>

이처럼 과학기술과 여성의 관계에 대한 페미니즘 이론은 과거 에코페미니즘에서 사이보그 페미니즘과 테크노페미니즘 변화해왔다. 이는 여성 정체성 논의가 이분법을 해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온 페미니즘 이론 변화와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아울러 이는 과학기술로 인해 유토피아/디스토피아가 도래할 것이라는 기술 결정론을 지양하고 기술이 사회적 맥락과 관련 맺으며 의미와 내용을 구성한다는 사회구성적 시각<sup>13</sup>에 근거한다.

이러한 페미니즘 기술이론들은 SF 어린이청소년문학의 기술애호와 기술비판의 극단으로 엄마상에 투영된 여성과 과학기술의 상관 관계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앞 장에서 모성이 재현된 방식에서도 그러했듯 이는 여성주의 관점뿐 아니라 과학기술 관점에서도 문제적이다. 여성의 정체성을 이분법으로 경계 짓고 있으며 과학사와 과학이론의 오랜 논쟁인 기술 결

11 장정희, 앞의 책, 174면.

12 이지연, 「과학기술에서 젠더와 몸 정치의 문제—다나 해러웨이의 사이보그 페미니즘을 중심으로」, 『한국여성철학』 제17권, 2012, 100~109면.

13 박진희, 앞의 글, 53면.

정론과 사회구성론의 시각 중 오직 기술결정론의 입장만이 고수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살펴본 작품들은 여성과 과학기술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여성이 과학기술에 대립하거나, 과학기술을 찬양하는 양상으로 재현하고 있어 고찰이 필요하다.

### 3. 가부장적 성 인식과 낭만적 사랑으로 규정된 여성

#### 1) 미래 사회의 성과 생식에 대한 전통적 상상력

페미니즘 SF는 성, 생식, 출산, 사랑에 대해 획기적인 상상력을 보여주었는데 특히 SF의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로 평가받는, 1970년대 페미니스트 유토피아 공간을 창조한 작품들이 그러하다.<sup>14</sup> 페미니스트 SF 작가들은 젠더가 사회적 구성물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양성 평등이 이루어진 가상 공간을 창조했다. 젠더에 대한 획기적 탐색을 시작한 어슐러 르 쿼의 『어둠의 왼손』(1969)에서 계젠 행성은 양성을 가진 이들이 거주하는 곳으로 이들은 생식주기에 양성 중 하나를 택해서 생식한다. 고정된 성 범주가 없는 이곳에는 성차별주의 역시 없다. 마지 피어시의 『시간의 경계에 선 여자』(1976)에서 여성들은 출산하지 않으며 남성 여성 양자가 아이에게 모두 젖을 먹인다. 사무엘 델라니의 『트라이톤 행성의 곤경』(1976)에서는 누구나 자유롭게 젠더, 섹스, 성향을 바꾸기 위해 외과수술과 심리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아예 남성이 분리된 페미니스트 유토피아를 제시한 조애나 리스의 「상황이 변했을 때」(1972)는 여성들이 남자를 혼합해 생식을 이어간다.

---

14 이하 장정희, 앞의 책, 179~183면 참조.

또 옥타비아 버틀러의 「블러드 차일드」(1984)에서 인간 남성은 외계인의 알을 부화시키기 위한 숙주이고, 『제노제네시스 3부작』 역시 외계인과 인간이 서로 유전자를 교환하는 생식 동반 관계이다.

아동청소년문학은 독자 연령의 특성상 성과 사랑에 대해 개방적으로 말하는 작품이 드물었고 SF에서도 역시 그러했다. 그중 『해방자들』(김남중, 창비, 2016)은 최근 SF 청소년소설 중 특별히 성과 생식, 사랑의 미래를 주제로 하고 있어 살펴볼 만하다. 공간 배경인 렌막은 여느 작품과 마찬가지로 철저한 계급 사회이자 통제 사회인데 지금까지 작품들과 다른 점은 개인의 성과 생식이 통제되는 사회상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이다. 렌막의 수도 렌막시티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의료적 처치를 받기에 성욕을 느끼지 못하며 정부로부터 허가받지 못한 성적 표현과 접근은 중범죄로 취급된다. 생식과 출산 또한 제한되어 아기는 출산 자격 검증에서 유전자 검사, 의료 기록, 전과 조회, 학력 증명, 수입 및 자산 내역 등의 심사를 통과한 부부만 낳을 수 있고 모든 아기는 생후 2년간 양육원에서 자란다.

이 작품은 설정상으로는 이렇듯 페미니스트 SF와 마찬가지로 성과 사랑의 주제를 다루며 현실의 젠더와 사회 구성에 의문을 품은 듯 보이지만 실질 내용에 있어서는 가부장제에 기반한 전통적 성 의식과 여성 의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인간의 성욕과 출산을 통제하는 디스토피아에 대항하는 혁명이 귀결하는 지점은 사랑으로 확장된 성욕의 인정과 출산 장려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남성들은 성과 출산의 억압에 항거하고 적극적으로 해방을 쟁취하려고 하지만 여성들은 서사 전반에서 주체성을 갖지 못한 채 출산하는 몸으로서만 묘사된다.<sup>15</sup> 즉 기존 SF의 상상력을 통해 제시되는 미래는 현재의 제도와 관념을 옹호하며 회귀할 뿐 미래에

15 렌막 군대와 시위대의 전쟁 중 투항하는 지니와 그의 무리에게 사람들은 “미안해하지 마. 끝까지 사랑하면 되는 거야!” “우리 뿔까지 애를 천 명쯤 낳아 줘.”라고 인사한다.

대한 고유한 전망은 나타나 있지 않다. 미래의 여성, 남성, 인간의 몸이 어떤 방식으로 변화할지, 그것이 젠더 개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탐구는 찾기 힘들다.

또 작품 초반부에는 성욕이 억압받는 상황을 묘사한 뒤 성을 사랑으로 확장시키며 성욕을 억압하는 사회에 대항하는데 이러한 주제의식이 설득력 있는 서사를 방해한다. 성욕 억제 처치를 거부한 대반 할아버지가 “불필요한 성욕을 제거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꼭 필요한 사랑까지 국가에 내줘 버린” 것이라며 웬만 군대와의 전투를 불사하는 상황이나 이것을 시민 항쟁으로까지 연상시키려 하는 의도는 과잉해 보인다. 지니와 소우가 오직 성욕의 유무 차이로 각자의 커플 관계에서 벗어나 사랑의 단계로 들어가는 마무리가 인과성과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 또한 성과 사랑을 연결시키려는 주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여겨진다.

미래의 성과 출산 문제에 집중해 구현한 디스토피아에 성평등의식이 전혀 수반되지 않은 점도 문제적이다. 마치 현실 세계의 성매매 공간인 양 묘사한 클럽에서 각 룸에 들어찬 남성들이 (현실 세계의 성매매 여성과 교환된 위치에 있는) 아기에게 안달을 내며 예뻐하는 장면<sup>16</sup>이나 불법 대리모 중개자인 진다이가 소우에게 자신의 수하로 들어올 것을 종용하며 대리모가 될 지니와의 성경험을 ‘선물’로 주겠다고 하는 장면<sup>17</sup>이 대표적

16 “나도 알아. 이 아기는 밤마다 아빠가 바뀌겠지. 이름도 여러 개일 테고. 알면서도 어쩔 수가 없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심사에서 늘 떨어지니까. 먹고 자는 건 국가에서 대 주지만 정말 사랑 하는 것은 가질 수가 없어.”

“아저씨!”

지니가 다미 아빠의 팔에 손을 올렸다. 지니도 알고 있었다. 이 나이 든 남자의 고통은 지니처럼 어린 여자애의 위로로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더욱 불쌍했다.

“아저씨 마음을 알아줄 착한 여자가 어딘가 있을 거예요.”(『해방자들』, 51면.)

17 진다이가 ‘선물’에 대해 마저 설명했다. 작은 동지의 다른 여자들처럼 지니도 아기를 낳기 위해 이곳에 왔다. 조직에서 사용할 아기가. 검사검사 소우에게 특별히 첫 경험을 할 기회를 주겠다. 먼저 매지와, 그 다음엔 지니와. 해 보면 별거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것이다. 그걸 깨달아야 인생의 다음 단계가 진행된다. 그게 피곤해지면 진짜 어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선물’은 진다이를

인 예다.

지나 코리아(Gena Corea)는 남성적 과학담론에서 임신과 출산에 관한 여성의 성이 동물의 암컷과 다를 바 없이 취급되고 있으며 여성의 성은 “재생산 매음굴”(reproductive brothel) 이상의 가치로 인식되지 못한다고 밝힌 바 있다.<sup>18</sup> 물론 페미니즘 SF가 모두 페미니스트 유토피아만을 재현한 것은 아니며 디스토피아를 통해서도 현실의 각성을 이루어낼 수 있다. 마거릿 애트우드의 『시녀 이야기』(1985)에서 여성은 가부장적 젠더 개념과 퀘를 같이 하는 다른 사회적 의무들 즉 아내, 하녀, 창녀의 역할을 수행하는 등 『해방자들』의 설정과 유사한 지점이 있다. 이 작품은 당시 보수적인 사회 분위기처럼 가부장제로 회귀하는 모양새를 보인다고 평가받는 한편<sup>19</sup> 그 럽에도 불구하고 디스토피아를 비판적으로 통찰하는 시선을 견지한다.

그에 반해 『해방자들』은 굴절된 성 의식과 여성의식을 비판이나 성찰이 가능한 문학적 장치 없이 표현하고 있다. 리얼리즘 소설에서는 논의가 될 만한 작품 요소나 작가의식이 SF라 해서 모두 디스토피아적 상상력으로 용인되거나 정당화될 수는 없을 것이다. 부연하건대 이는 SF 청소년소설이 도덕적, 윤리적이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SF 아동청소년문학에서 디스토피아가 어떠한 방식으로 구현될 지에 대한 탐구가 더욱 필요해 보인다.

위해 일하게 된 것을 기념하는 입회식 정도로 생각하면 된다. 소우가 싫다면 소우 대신 다른 사람이 지니와 할 수도 있다.(『해방자들』, 116면.)

18 지나 코리아의 “재생산 매음굴”이란 표현은 위에서 지적한 작품 속 상황이나 묘사들과 놀랍도록 유사하다.

송효림, 「포스트휴먼 로맨스와 감성적 진화 : 여성 과학소설로 본 테크노사이언스적 사랑의 의미와 욕망」, 『영미문학페미니즘』 제24권 2호, 2016, 63면.

19 장정희, 앞의 책, 182면.

## 2) 에코페미니즘의 이분법과 낭만적 사랑

최근 SF 청소년소설에서 사랑은 미래 사회에서의 정체성이나 변화 그 자체가 탐구되기보다는 서로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두 존재의 만남에 대한 상징으로 종종 이야기된다. SF는 독특한 문학 형식이다 보니 여러 작가들이 공동 주제로 엮은 앤솔리지에 한 두 편씩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내일의 무게』(김학찬 외, 문학동네, 2014)에 실린 전삼혜의 「하늘의 파랑, 바다의 파랑」도 그러하다.

이 작품에서 지구는 공중도시와 해저도시로 분리되어 거의 교류 없이 살아가고 두 도시에 사는 인간은 신체 특징도 점차 달라진다. 공중도시 최하층 보육원에 사는 열일곱 소년 가하는 상층 계층으로의 진입을 꿈꾸었지만 어느 날 해저도시에 사는 소녀 나루를 만나 공중도시 인공위성 관제센터에서 일하려는 인생 계획을 변경한다. 최상층으로 올라가면 골밀도가 낮아져 지상으로 내려가기 힘들어지고 나루와 만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가하는 제일 낮은 계층의 직업인 지상 경비대 일을 지원한다. 공중도시의 가하가 해저도시의 나루를 처음 만났을 때 “외국인, 혹은 외계인”으로 느껴졌듯 SF적 상상력으로 구축된 공간에서 이들의 존재는 공간의 거리만큼 멀고 먼 존재의 거리가 있음을 상기시킨다. 하지만 공중도시 인공위성 관제센터에서 일하고 싶어 했던 가하와 해저도시 심해조사연구원이 되고 싶어 하는 나루의 관계는 지상 가까이 내려오는 가하의 결단으로 공간의 거리와 존재의 거리를 좁혔다. 두 존재의 거리가 좁혀지고 친밀해지는 사랑의 관계가 SF적 공간 설정에서 더욱 상징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너의 세계』(최양선, 창비, 2014)는 지구에 사는 타냐와 엘리시온 행성에 사는 시온의 사랑을 말한다. 과학기술이 고도로 발달한 행성 엘리시온에 사는 생명체인 엘리시안은 지구로부터 물질을 가져와 행성 표면을 지구처럼

조직하고 자신들의 몸을 인간처럼 만든다. 지구와 동일한 환경과 인간의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물질을 계속 충전 받아야 하기에 인간 유전 물질 소유자인 수장을 비롯해 물, 불, 숲, 공기 등 핵심 물질 소유자들은 최상층 계층으로의 권력을 갖고 있다. 지구 물질 탐사에 처음으로 나선 열일곱살 시오는 지구에서 인간의 영혼 물질을 찾고 싶어 한다. 인간의 영혼을 지녀야 엘리시안이 완벽한 인간이 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알래스카 사면의 딸인 타냐를 만나 사랑을 하게 되고 타냐를 통해 영혼은 다른 물질들처럼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통해 나누는 것임을 깨닫는다.

이 작품에서는 인간의 외양을 지니고 있지만 실은 외계인인 시오와 지구인인 타냐가 전혀 다른 생명체임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의 영혼에 눈뜨는 과정이 낭만적 사랑으로 숭고하고 아름답게 그려지고 있다. ‘너의 세계’라는 제목은 표면적으로는 엘리시온과 지구라는 서로 다른 행성을 지칭하는 것이겠지만 함축적으로는 타인의 세계이며 사랑의 힘으로 비로소 그 세계를 만날 수 있음을 말한다. “사랑은 새로운 세계를 알게 해 주”는 것이라는 작품의 주제는 서로 다른 행성에 다른 두 존재의 사랑으로 더욱 강조되고 부각된다. 나아가 그 사랑은 영혼을 부정하는 엘리시안과 자기들에게도 이미 영혼이 있는 걸 알면서도 영생과 권력을 위해 이를 독점하려는 수장에 맞서 시오가 물질소유자인 부모에게 물려받은 최고의 계급과 생명까지 포기하게 하는 전복성을 지닌다.

외계인과의 사랑과 성적 결합은 SF에서 낯설지 않은 일이지만 최근 한국 SF 청소년소설에서 이를 전면에 다루고 있는 작품은 『너의 세계』가 거의 유일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비록 외계인 시오가 인간과 똑같은 외양이기는 하나 시오와 타냐의 성적 결합을 에둘러가지 않은 건 분명 전진한 지점이다. 또 이러한 성적 결합으로 외계인과 지구인과의 만남이 일회

적으로 끝나지 않을 여지가 생겼다. 하지만 지구인과 외계인과의 만남을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이 작품은 철저히 지구-자연-여성-영혼/외계-기술-남성-육체의 이분법적 시각으로 구성됐으며 가치의 우위를 전자에 두고 있다.

이는 다나 해러웨이가 이러한 이원론적 정체성을 비판하고 극복하려 하며 “나는 여신보다는 차라리 사이보그가 되겠다”<sup>20</sup>고 말한 것과 대조적이다. 해러웨이는 유기체와 기계, 자연과 문화, 동물과 인간의 경계를 없애고 재구성하려 했으며 신도 여신도 죽었다고 강조하면서 자연으로 돌아가는 ‘여신주의 페미니즘’에 반대했다. 그에 비해 이 작품의 타나는 자연과 교감하는 무녀로 설정되어 있다.

SF는 미래의 성과 사랑에 대해 로봇 등 기계와의 사랑과 섹스, 햅틱 테크놀로지(haptic technology)를 통한 사이버섹스, 외계인의 성과 성폭속의 유입<sup>21</sup> 등 매우 실제적이면서도 구체적인 상상력을 제시한다. 지금껏 성과 사랑을 주제로 하는 아동청소년문학 작품들은 조금은 보수적으로 매우 제한된 이야기만을 언급해왔다. SF 아동청소년문학은 SF만의 특징으로 기존의 성 인식을 확장하거나 전복하면서 어린이, 청소년 독자들이 미래에 걸맞는 자신만의 성과 사랑에 대한 질문과 해답을 찾아갈 수 있게 하길 기대한다.

#### 4. SF 어린이청소년소설과 소수자 문학의 가능성

『옆집의 영희씨』(정소연, 창비, 2015)는 최근 SF 어린이청소년소설 중 여성

<sup>20</sup> 장정희, 앞의 책, 230면에서 재인용.

<sup>21</sup> 고장원, 『SF의 힘』, 추수밭, 2017, 196~215면.

SF 작가로서의 명확한 정체성으로 창작된 작품집이다. 작품의 중심인물은 비롯한 거의 대부분 인물은 여성이며 여성 인물들은 모두 남성과 다를 바 없는 평등한 삶을 살아나간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들은 여성, 장애인, 청소년, 때로는 외계인으로 소수자 정체성을 지닌 존재이기도 하다.

특히 「앨리스와의 티타임」은 평행 우주를 탐사하는 직업을 가진 여성 주인공이 앨리스 셸던<sup>22</sup>이라는 여성을 만나는 이야기로, 대표적인 여성 SF 작가인 제임스 팁트리 주니어(James Tiptree Jr.)에 대한 애정과 헌사가 담긴 작품이다. 남성 필명을 사용하며 사회적, 개인적 자아와 작가적 자아를 철저히 분리시킨 제임스 팁트리 주니어의 삶은 평행 우주라는 작품 설정에 적절할 뿐 아니라 여성 작가가 여성 필명이 아닌 남성 필명을 쓴 이유와 영향, 의미를 고려해 볼 때에도 작가의 젠더 의식이 수반된 작품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젠더 의식을 바탕으로 이 작품집에서는 「마산앞바다」, 「처음이 아니기를」, 「가을바람」 등 여성 동성애자 인물의 생각과 감성을 자각적으로 드러낸다.<sup>23</sup> 그중 「마산앞바다」는 SF적 상상력이 발현된 립보라는 공간을 통해 동성애자의 성정체성 고민을 상징적이고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22 남성 이름으로 필명을 사용한 제임스 팁트리 주니어의 실제 이름이 앨리스 브래들리 셸던(Alice B. Sheldon)이다. 작품에 언급되는 평행우주 세계의 작가 중 조애나 러스(Joanna Russ) 또한 유명한 실존 SF 작가이자 레즈비언 작가이다.

23 한국 SF에서 동성에 주제를 천착하는 작가는 두나와 정소연 정도로 꼽을 수 있지만 다른 세계를 상상하는 SF는 일찍이 동성애를 주제로 다루기 시작했는데 특히 1970년대 부상한 페미니즘 과학소설 운동 이후 영미권 SF 작가들은 이를 적극 창작했다. 이들은 작가 개인의 성적체성과는 관련 없이 동성애를 소재주의 차원이나 기계적인 평등 차원에서 나아가 진지하게 접근했다. SF 작가들은 여성들만의 사회를 다루더라도 이슈 제기 차원에서 이상화하는 대신 부조리극으로 변주하는 사회적 통찰을 선보였다. 제임스 팁트리 주니어의 중편 「휴스턴, 휴스턴 들리는가」(1976)에서 여성들로만 이루어진 사회를 거부장제와 다를 바 없는 권력에 기반한 사회로 성찰하고 비판한 것이 대표적이다. 1980년대 이후 동성에 작가들은 ‘게이&레즈비언 SF협회(Gaylaxian Science Fiction Society)’를 결성했으며 1988년부터 동성애자 SF 팬들을 위한 SF 컨벤션(Gaylaxicon)을 열고 문학상을 수여한다. 1990년대 이후로는 동성애자 작가들만의 과학소설 선집의 출간과 신인 작가의 배출이 매우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고장원, 『SF의 힘』, 추수밭, 2017, 191~192면 참조.)

작중 마산 앞바다는 립보라 불리는 공간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의 에너지와 반응해 죽은 지인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공간이다. 원래 립보는 가톨릭교회에서 고성소라고 하는 천국과 지옥의 중간 공간, 만화와 영화에서 경계가 모호한 무한 배경을 일컫는 말이다. 이러한 의미로 인해 작품에서 립보는 모호한 경계 상에 있는 주인공 현아의 성정체성을 상징하는 공간이 된다. 현아는 어린 시절 립보가 있는 고향 마산을 떠나오며 자신의 성정체성을 거부하려고 하지만 일찍이 학교 내에서 커밍아웃한 후배 지원의 고백을 수락하고 결국 자신의 성정체성을 받아들인다.

이 작품집이 페미니즘 SF로서 견지하는 소수자에 대한 시선은 동성애자들 뿐 아니라 장애인 여성 주인공에게로 향한다. 어릴 적부터 우주인이 되고 싶어 노력해온 주인공은 우주인의 꿈이 이루어지려는 관문 앞에서 교통사고로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이 된다. 하지만 스물아홉에 장애인이 된 후에도 꿈을 버리지 않던 중 골밀도 등 건강 문제로 지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우주인을 모집하게 되자 서른아홉의 나이에 우주인이 되는 꿈을 이룬다. 이는 물론 장애인만을 특정해 채용하게 된 우주 시대의 특별한 기회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고 우주라는 SF 공간에서 가능했던 꿈이다. 하지만 이 작품이 여느 장애인 성공 서사와 다른 점은 성공이 아닌 소수자 문제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인공은 “소국의 어린아이” “반도에 묵인 스물세 살 여학생”으로 자신의 인종적, 성별적 지위를 인지하면서도 학위를 받고 외국어를 공부하며 꿈을 이룰 기회를 기다린다. 우주는 장애인 여성에게도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기회의 공간이다.

경계인이라는 점에서 청소년 역시 소수자 문제로 접근된다. 「비거스렁이」는 자아정체성을 탐색하는 청소년기를 평행 우주 속에서 자신의 세계를 찾지 못한 이야기로 상징한다. 주인공 지영은 자신이 “여기에 없는 것 같”고 “붕 떠 있는 것 같은, 금방이라도 발밑이 사라질 것 같은 느낌”이지

만 “여기가 내 자리라는 느낌을 받고 싶”고 “제대로 여기에 있고 싶”다고 생각한다. 열여섯 살 지영의 이러한 고민은 일반 청소년소설에서 줄곧 보아왔던 청소년의 고민과 현실을 넘어 우주적인 시각으로 확장되면서 청소년기 정체성의 고민에 대한 색다른 시야를 선사한다.

이밖에도 이 작품집에서는 타자에 대한 다양한 관심과 고민의 시선을 읽을 수 있다. 몹시 사랑하는 입양한 딸(「입적」)과 옆집 이웃(「옆집의 영희씨」)이 외계인, 지구에 사는 친언니를 만나러 가는 지구 출신 화성인(「귀가」), 점차 사이보그가 되어가는 나와 H와 K의 이야기는 SF가 다양한 세계의 타자들을 늘 염두하고 중시하는 장르라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 5. 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작품들은 현재 아동청소년 SF를 대표하는 작품들로 문학적 성과와 완성도를 나름대로 인정받은 작품들이다. 주요 문학상을 수상했고, 주요 출판사에서 출간됐으며, 평단과 독자의 관심을 받아온 유명 작가의 작품이다. 하지만 여성주의 관점에서 분석할 때 상당히 문제적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단지 페미니즘 비평방법론으로 분석한 결과는 아니었다. 현재까지 가장 대표적인 페미니즘 과학기술 이론으로 논의되고 있는 다나 해러웨이(Donna J. Haraway)의 사이보그 페미니즘(Cyborg Feminism), 주디 와츠먼(Judy Wajcman)의 테크노페미니즘(Technofeminism)에 비추어 작품을 살펴본 결과 단지 여성주의 관점에서뿐 아니라 SF 작품으로서도 문제적임을 알 수 있었다. 즉 SF란 장르의 기준으로 볼 때에도 과학기술과 미래를 인식하는 선구적인 면모가 뒤떨어졌고, 현실을 전복하는 상상력 또한 미흡했다.

페미니즘 SF의 관점에서 볼 때 현재 SF 아동청소년문학은 여성상, 여성과 과학기술의 관계를 구현하는 시각에서뿐 아니라 주제 의식, 작가 의식에 서도 좀 더 다른 지평으로 변화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페미니즘 SF는 대부분 아동청소년 SF가 보여 온 근미래 디스토피아의 상상력에서 나아가 지금까지와 다른 SF 작품을 개척할 수 있는 반성적 토대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 여기’의 세계를 전복하는 SF의 상상력과, 여성을 비롯한 소수자와 약자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페미니즘의 세계관 모두를 겸비한 페미니즘 SF는 나아가 어린이청소년문학 전반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어린이, 청소년 역시 어른의 통제로 구성되고 운영되는 ‘지금 여기’ 우리 사회의 소수자이기 때문이다. 리얼리즘의 문학 양식과 세계관에 기반한 어린이청소년문학과는 또 다른 SF만의 전복과 혁신의 상상력은 어린이청소년문학의 자리와 지향을 각성시키며 새로운 창작 실험을 가능하게 하길 기대한다.

## 참고문헌

### 1. 기본 자료

- 김성진, 『엄마 사용법』, 창비, 2012.  
 경린 외, 『안녕, 베타』, 사계절, 2015.  
 안미란, 『씨앗을 지키는 사람들』, 창비, 2001.  
 김윤영, 『달 위를 걷는 느낌』, 창비, 2014.  
 김남중, 『해방자들』, 창비, 2016.  
 최양선, 『너의 세계』, 창비, 2014.  
 정소연, 『옆집의 영희씨』, 창비, 2015.  
 손서은, 『킬러보이』, 비룡소, 2014.

### 2. 논문 및 평론

- 고장원, 「과학소설 문학의 가치와 미래」, 『어린이책이야기』(통권 12호) 겨울호, 2010.  
 \_\_\_\_\_, 「한국 SF와 여성의 시선<옆집의 영희씨> 서평」, 『창비어린이』(통권 52호) 봄호, 2016.  
 권혁준, 「이동청소년문학에 나타난 SF적인 상상력」, 『창비어린이』(통권 45호) 여름호, 2014.  
 김숙희, 「여성 글쓰기의 또 다른 지평:SF 소설」, 『동덕여성연구』 제6호.  
 김유진, 「SF가 이야기하는 ‘어린이’와 그의 ‘세계」, 『창비어린이』(통권39호) 겨울호, 2012.  
 김이구, 「과학소설의 새로운 가능성」, 『어린이문학을 보는 시각』, 창비, 2005.  
 김지영, 「1960~70년대 청소년 과학소설 장르 연구-『한국과학소설(SF) 전집』(1975) 수록 작품을 중심으로」, 『동남어문논집』 제35집, 2013.  
 \_\_\_\_\_, 「한국 과학소설의 장르소설적 특징에 대한 연구-『한국과학소설(SF)전집』(1975)을 중심으로」, 『인문노총』 제32집, 경남대 인문과학연구소, 2013.  
 박소울, 「한국 SF 동화에 나타난 로봇 캐릭터 연구」, 건국대 석사학위논문, 2016.  
 박정임, 「SF 청소년소설 연구-2000년대 이후 SF 청소년소설을 중심으로」, 건국대 석사학위논문, 2015.  
 박진희, 「페미니즘과 과학기술」, 한국과학기술학회 강연/강좌자료, 2005.  
 박혜영, 「과학소설에 나타난 어린이의 정체성」, 대구교대 석사학위논문, 2014.  
 손진원, 「1960년대 과학소설 연구」,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2016.  
 송효림, 「포스트휴먼 로맨스와 감성적 진화 : 여성 과학소설로 본 테크노사이언스적 사랑의 의미와 욕망」, 『영미문학페미니즘』 제24권 2호, 2016.  
 오혜림, 「2000년대 한국 어린이·청소년 SF에 나타난 디스토피아 공간 연구」, 춘천교대 석사

학위논문, 2016.

이지언, 「과학기술에서 젠더와 몸 정치의 문제—다나 해러웨이의 사이보그 페미니즘을 중심으로」, 『한국여성철학』 제17권, 2012.

조계숙, 「국가이데올로기와 SF, 한국 청소년 과학소설—학생과학지 수록작을 중심으로」, 『대중서사연구』(제20권 3호), 대중서사학회, 2014.

좌종화, 「타자 담론의 여성적 전유:포스트모던 페미니스트 과학소설」, 『영미문학 페미니즘』 제12권 1호, 2004.

최애순, 「우주시대의 과학소설-1970년대 아동전집 SF를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제60집, 17권, 3호),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13.

최은주, 「포스트휴먼 시대에 재배치되는 성과 몸—다나 해러웨이의 공의존적 복수주체」, 『비평과 이론』 제12권 2호, 비평과이론학회, 2007.

### 3. 단행본

고장원, 『SF의 힘』, 추수밭, 2017.

박상준 외, 『한국 창작 SF의 거의 모든 것』, 케포이북스, 2016.

이지언, 『도나 해러웨이』, 커뮤니케이션북스, 2017.

장정희, 『SF 장르의 이해』, 동인, 2016.

다나 해러웨이, 『유인원, 사이보그, 그리고 여자』, 동문선, 2002.

\_\_\_\_\_, 『한 장의 잎사귀처럼』, 갈무리, 2005.

\_\_\_\_\_, 『겸손한\_목격자@제2의\_천년\_여성인간©\_양코마우스TM를\_만나다』, 갈무리, 2007.

주디 와즈먼, 『페미니즘과 기술』, 당대, 2001.

abstract

## A Feminist Study of Science Fiction (SF) for Children and Young Adults

Kim Yoojin

This study analyses recent science fiction (SF) for children and young adults, focusing on main issues of SF related to feminism, such as a maternal bond, the relationship between women and technology, sexuality and love, and minorities.

Since the 1960s, in-depth research and critiques on SF including theoretical approaches such as Marxism, feminism, queer theory, post-modernism, ecology, and futurology have been increased in the U.S. and U.K., which emphasized the potential of SF as literature. Particularly, the approaches related to feminism can be meaningful as they upset patriarchal structures and dismantle and reconstruct traditional theories based on gender. This study examines SF based on cyborg feminism by Donna Haraway and Technofeminism by Judy Wajcman, which have been considered representative feminist theories of technology.

In the 1960s and 1970s, SF for children and young adults had been created and translated in South Korea, along with various genres of literature, and since the 2010s, the SF had been actively created again and shown the novelty in literature. However, currently, it seems the SF

has lost its vitality and reiterates similar dystopian perspectives. Therefore, this study based on feminism intends to indicate the various and extensive potential of SF as literature.

Feminism SF would contribute to overall literature for children and young adults as it has both the creativity of SF that dismantles the world of ‘now and here’ and the worldview of feminism that listens to the voices of minorities and vulnerable populations including women. Children and young adults are minorities in our ‘now and here’ society that adults controls and administers. The revolutionary and innovative creativity of SF, which is different from realism literature for children and adults, would awaken the current and future directions of literature for children and young adults and facilitate new writing experiments.

■ Keywords: SF, Feminism, Children’s literature, Novels for young adults

■ 논문접수일: 2018. 05. 15. / 심사기간: 2018. 05.28~06.08. / 게재확정일: 2018. 06.10.